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거덜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거덜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거덜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거덜

한눈에 보는 기록

뜻
재산이나 살림 같은 것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요약 연대표

표기	19세기	20세기	현재
거덜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재산이나 살림 같은 것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 수록 용례

6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9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거덜'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재산이나 살림 같은 것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거나 없어지는 것.



거덜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거덜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거덜 사전 표기 요약	—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거덜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거덜



거덜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ㄱ 말의 구성과 어원

‘거덜’은 19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단독형으로 나타나는 것은 20세기부터지만, ‘거덜’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복합어를 이루는 구성이 19세기부터 확인된다.



문헌 속의 거덜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거덜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거덜

출처 1896 국한회어 곤:16

용례 01

66 문헌 용례

거덜나다 [敗家].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사전 PART I :215

용례 02

66 문헌 용례

거덜나다 [敗].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거덜 용례 4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거덜

출처 1908 빈상설 49

용례 03

66 문헌 용례

늬을 고뵈가 되닛가 썩장이로 나셔셔 남의 집 절문 주식을 거덜 니기와 유부녀 유인ㅎ기로 싱
이를 삼는다.

㉮ 현대어 풀이

늬을 무렵이 되니까 뚜쟁이로 나셔서 남의 집 젊은 자식을 거덜 내기와 유부녀 유인하기로 생애를 삼는데.

출처 1911 모란병 6

용례 04

66 문헌 용례

돈냥이나 잇는 어수룩한 사람을 톼툼이 유인히다가 하로밤 동안의 거덜을 니고.

㉮ 현대어 풀이

돈냥이나 잇는 어수룩한 사람을 톼툼이 유인해다가 하룻밤 동안에 거덜을 내고.

출처 1912 황금탑 85

용례 05

66 문헌 용례

서울서 었던 자 슈삼 인이 외국인과 갓치 단여 가더니 일조일석에 거덜이 나셔.

㉮ 현대어 풀이

서울서 어떤 자 수삼 인이 외국인과 같이 다녀가더니 일조일석에 거덜이 나셔.

출처 1923 개벽 제35호 131면

용례 06

66 문헌 용례

그의 집의 한 사오백 하든 살림이 남의 빚 봉수로 말미암아 거덜이 나고 말았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거덜에 관한 주석

《조선어사전》(문세영, 1938)에서는 조선 시대의 ‘거덜’을 ‘거달(擧達)’로 보고 여기서 ‘거덜’이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큰사전》(1957)에서는 ‘거달’을 ‘거덜’의 취음자로 보았다. 두 사전 모두에 ‘거덜’은 조선 시대의 거덜로 뜻풀이가 되어 있고 재산이 없어지거나 살림이 흔들리어 결나는 것은 ‘거덜나다’에만 나타난다.

거덜의 보충 설명

조선 시대에, 사복시에 속하여 말을 돌보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 하던 종을 ‘거덜’이라고 하였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 말을 타고 행차를 할 때는 거덜이 앞장을 서서 소리를 치며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고 한다. 직책은 낮지만 늘 큰소리로 사람들을 몰아세우다 보니 자연히 우쭐거리고 몸을 흔들고 다니는 행위가 몸에 익었을 것이다. 여기서 궁중의 말을 돌보는 거덜이 타던 말 또는 걸을 때 몸을 몹시 흔드는 말을 뜻하는 ‘거덜마’가 나왔다고 한다. 이 흔들거린다는 의미가 발전하여 살림이 흔들리는 것으로 발전하여 견고했던 무언가가 허물어지거나 없어지게 되는 것을 ‘거덜’ 또는 ‘거덜 나다’로 표현하게 된 것으로 짐작된다. 조선 시대의 ‘거덜’은 《한영사전》(1897)에 ‘사복거덜’의 형태로 나타난다. [예] 수복거덜 [司僕馬夫] <1897 한영사전 PART I :544>

거덜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박일환 1994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 염광호 2021 《우리말 어원 산책》 역락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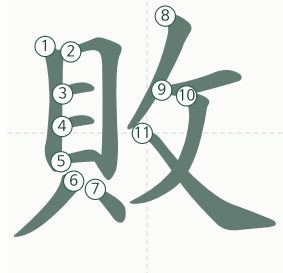
history.wordrow.kr · 거덜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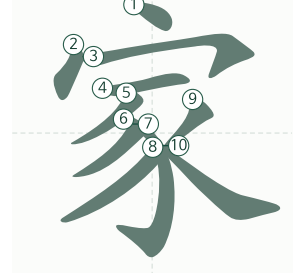
뜻·음 패할 패
총 11획 · 부수 攴



hanja.wordrow.kr/한자/敗/

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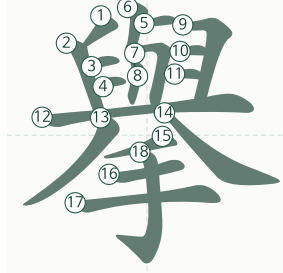
뜻·음 집 가
총 10획 · 부수 宀



hanja.wordrow.kr/한자/家/

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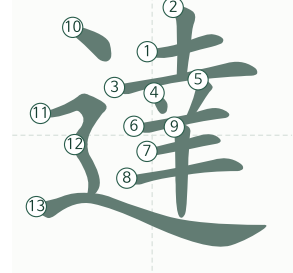
뜻·음 들 거
총 18획 · 부수 手



hanja.wordrow.kr/한자/舉/

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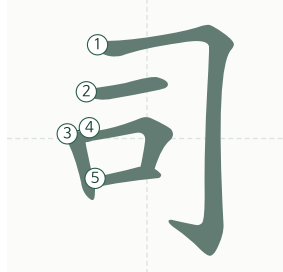
뜻·음 통달할 달
총 13획 · 부수 辵



hanja.wordrow.kr/한자/達/

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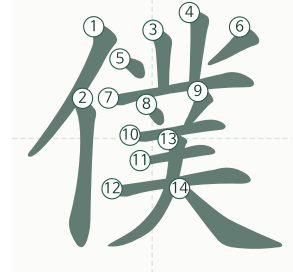
뜻·음 맡을 사
총 5획 · 부수 口



hanja.wordrow.kr/한자/司/

僕

뜻·음 종 복
총 14획 · 부수 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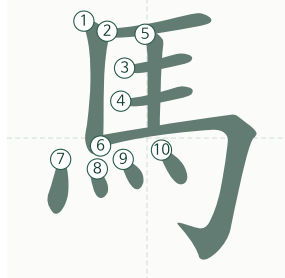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僕/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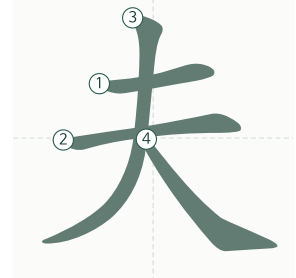
뜻·음 말 마
총 10획 · 부수 馬



hanja.wordrow.kr/한자/馬/

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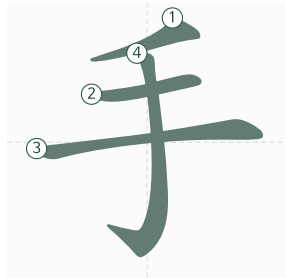
뜻·음 지아비 부
총 4획 · 부수 大



hanja.wordrow.kr/한자/夫/

手

뜻·음 손 수
총 4획 · 부수 手



hanja.wordrow.kr/한자/手/